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월간 내일

06
Vol. 541

행복 일터
●○○
Intro
슬기로운
재택근무백서

희망 일터
○●○
Y&I
우리 회사 노사관계요? 갓 나온
무쇠처럼 뜨겁고 단단합니다

힐링 일터
○○●
미디어 속 노동읽기
영화 〈기생충〉,
이 중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Contents

안녕하세요! 04
생활 속 거리두기 덕분에 위생관념 철저해진 늘봄 과장이에요! 08
걸음이 느려서 안 그래도 출근 시간이 모자랐는데, 10
마스크 쓰랴, 손 닦으랴, 출근 준비가 그야말로 역대급 전쟁입니다. 12
그런데요. 제가 요즘 편해졌어요. 출근을 안 하거든요. 16
퇴사를 했냐고요? 아니요~ 저, 재택근무해요. 20
히히. 그래서 이번 달엔 재택근무를 포함한 24
유연근무제에 대해 말해볼까 해요.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41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2020. 06
vol.541

행복 일터

Intro 28
슬기로운 재택근무백서

Topic 32
키워드로 알아보는 코로나19

Info
위기상황에 주목받은
다양한 근무체계 36

People
똑소리 나는 재택근무의
달인을 만났습니다 40

System 44
재택근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Plus
우리 아직 가까워지지 말아요 48

Post
생활 속 거리두기, 저 '문종업'과
함께 하실래요? 52

희망 일터

인생 2막 62
두근 두근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 김영준 금융전문강사

명장의 시간 66
명장으로 우뚝 선, 꿈을 품은 '꾼'
– 기양금속공업㈜ 배명직 대표 68

Y&I
우리 회사 노사관계요?
갓 나온 무쇠처럼 뜨겁고 단단합니다 70

더불어 세상
헤이 브라더! '브라더스키퍼'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74

기술이 힘!
전기기술인력 양성 메카
"취업 걱정 없어요!" 76

인생설계카드 78
나만의 리미티드 에디션!
직접 만들어 봐요

정책이슈 82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 뉴스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영화 〈기생충〉, 이 중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시사백과
오묘한 당신의 심리, 도대체 왜일까?

직장탐구생활
따르르릉~ 전화, 잘 받고 계십니까?

고민타파
사장님과 제 생각은
늘 조금씩 다르네요…

저녁이 있는 삶
우리 사이는 2m가 딱 적당해요!
심심할 땐, 집콕 챌린지 하세요!

직장인 건강상식
에어컨 청소하셨습니까?

주말에 뭐 할래?
이불 밖은 아직 위험해요.
집에서 즐기는 착한 놀이

애독자 모의고사

슬기로운 재택근무백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손쉽게 건네던 인사말도 전과 다르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니 말입니다. 악수마저도 조심해야 하는 지금,
전 세계의 근무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재택근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막아주는 아주 똑똑한 근무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하는 나날 속에서도 코로나19는
다양한 근무방식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작으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처럼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되어 주고 있으니까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노동부의 똑똑한 근무방식을
소개합니다.

10
위기에 맞선
유연근무제 관련 통계

16
알쏭달쏭
재택근무 가이드

20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다양한 근무방식들

24
아티스트 문종업과
함께하는 생활방역

키워드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죠. 대부분의 것들을 집에서 해결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만나봅니다.

집콕족

'집안에 콕 박혀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집콕족은 코로나19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집안에서만 머무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상상코로나

코로나 블루의 영역을 넘어선 '상상코로나'는 피로나 두통 등 일상적인 증상에도 코로나19의 감염을 의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약간의 감기 증상에도 감염을 확신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이 때문에 보건소를 찾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언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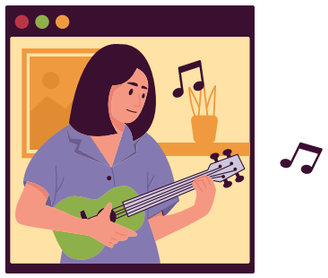
집콕족의 증가는 언택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택트란 접촉한다는 의미의 콘택트(Contact)에 부정사 언(Un)을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없이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상품의 구매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트에 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식재료를 주문하고, 영화관에 가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구매하는 사례가 언택트에 해당하죠. 이와 같은 이유로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소프트웨어 같은 온라인 사업은 전례 없는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컨대 '나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감염병 관련 정보에 집착을 보이는 것을 말하죠.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활동 제약에 따른 무기력증,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등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손 씻기, 코와 입에 손대지 않기, 마스크 항시 착용하기 등의 노력 역시 코로나 블루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죠?

랜선 스킨십

언택트는 랜선 스킨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를 기피함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문화생활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직접 공연장을 찾아야만 관람이 가능했던 연극을 유튜브로 공개하는 '랜선 공연'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지속될 것을 우려해 각 기업들도 랜선 스킨십을 강조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는 코로나19 장기전이 불러낸 상위검색어 중 하나이자, 현 상황을 타파하려는 사람들의 혜안을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가 아닐까요? 차에 탑승한 채로 검진을 하는 것은 물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물품을 대면접촉 없이 구입하는 행렬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집회 역시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도 드라이브 스루처럼 원활하게 지나쳐주길 바라봅니다.

위기상황에 주목받은 다양한 근무체계

코로나19를 타개할 방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바 있죠. 위기상황에 직면한, 달라진 우리들의 근무방식을 살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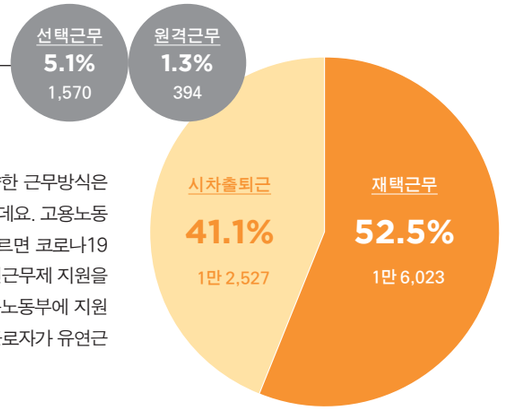
워라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권고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기업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면대면 업무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재택근무를 하면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선택한 기업의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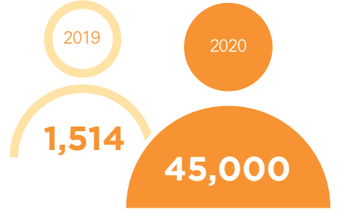
※ 국내기업 직장인 855명 조사 자료: 잡코리아, 알바몬

유연근무제 유형별 신청 현황

(단위: 명, %)



재택근무 말고도 코로나19에 맞선 기업들의 다양한 근무방식은 선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으로 이어졌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유연근무제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2,600여 곳을 넘어섰으며,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결과만으로 볼 때 최소 3만여 명의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4만 5천여 곳으로, 이 가운데 78%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1,514곳인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3만여 명의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선택하고 있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한 차례 격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감염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유연근무제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 편집실 | 사진 뱅크샐러드

올해 초부터 전사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위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돼 비슷한 시점에 맞춰 전사 재택근무를 진행했죠.

똑 소리 나는 재택근무의 달인을 만났습니다

뱅크샐러드의 유연근무제 담당
People&Culture 김기재 본부장

여기, '꼭 회사를 가야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일찍부터 깬 회사가 있습니다. 자산관리앱으로 주목받고 있는 '뱅크샐러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재택근무는 물론, 시차출퇴근제나 원격근무제 그리고 오후 2시에 출근할 수 있는 '반반차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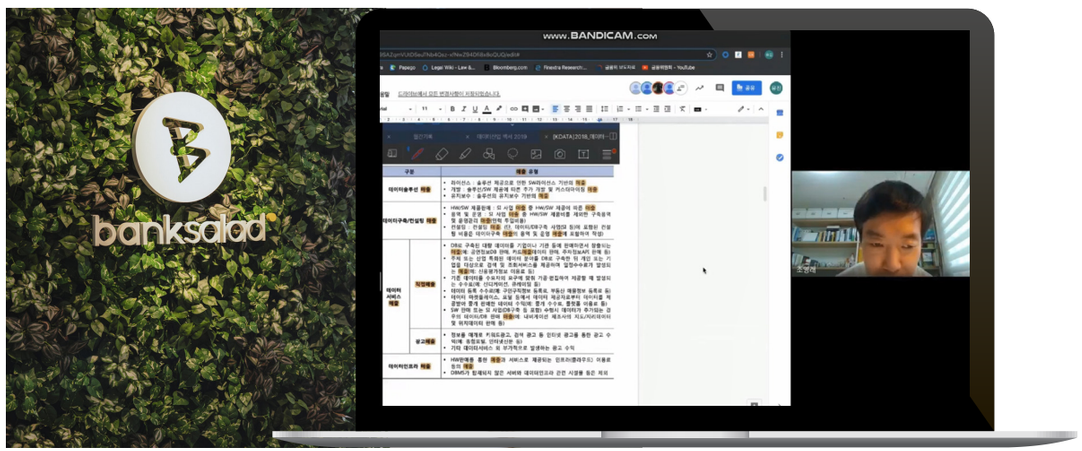
Q_ 우선, 회사 소개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네요. 뱅크샐러드, 어떤 회사인가요.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금융 플랫폼입니다. 흩어져 있는 고객의 금융 및 실물 자산을 앱 하나로 연결시켜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금융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해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금융 외 산업 데이터와 연결해 좋은 금융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툴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50명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의 고도화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마이데이터 스케일업을 목표로 채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Q_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찍부터 재택근무제를 실시했다고 들었어요.

뱅크샐러드는 오래 전부터 회사 밖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리모트(remote) 제도'를 운영했어요. 오랜 기간 리모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고요. 올해 초부터 이미 전사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위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돼 비슷한 시점에 맞춰 전사 재택근무를 진행했죠. 무엇보다 직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논의하고 시점을 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Q_ 그런데 '장기간 재택근무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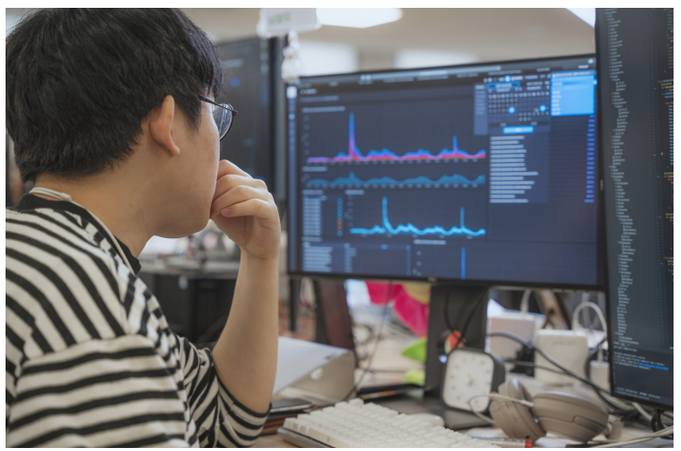
물론 장기간 재택근무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불편한 부분도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저희 회사도 현재는 전사 정상 근무체계로 전환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누구나 재택근무가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개교 일정이 미뤄지면서 자녀 육아를 해야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죠. 건강은 스스로 컨트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조금이라도 몸이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 역시 리더의 승인 하에 재택근무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Q_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아요. 재택근무는 집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회사에서 느끼던 긴장감은 다소 사라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오너십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사의 오너'라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요. 물론 전사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 규칙도 세웠고요.

Q_ 어떤 규칙들을 세웠는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전사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 규칙들은 ① 원활한 업무 공유 ②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③ 화상 미팅 시 얼굴 인증이에요. 저희 회사는 슬랙(slack) 등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툴로 소통을 하는데요. 해당 툴을 통해 진행하는 업무와 완료한 업무 등을 오버커뮤니케이션으로 공유해 상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업무 요청 시에는 최소 15분 내에 답변을 하도록 안내했고요. 각 팀에서는 정기적인 화상 미팅을 통해 각자의 업무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도록 했는데요. 다행히 강제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규칙이 잘 지켜졌어요. 재택근무 시에도 업무 효율이 나빠지거나 소통이 어려웠던 부정적인 시그널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모든 팀이 회사에서 안내한 규칙을 기본으로 삼되, 리더의 방식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죠.



Q_ 집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궁금해요. 야근이나 식대 등 복지제도 부분은 출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적용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회사는 분기마다 개인 및 조직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 방식에 의해 업무가 진행돼요. OKR 결과가 곧 성과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의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잘 챙길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업무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위한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는 없었고요. 재택근무 기간에 출근을 하는 분들에게는 왕복 교통비를 지급했고,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는 분들에 한해 식대를 지급했어요.

Q_ 재택근무 기간 동안 화상채팅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직원들 반응은 어땠나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행아웃 등의 툴을 사용해 화상채팅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재택근무 기간 동안 Tech-All-Hands 행사를 화상채팅으로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 같아요. 서로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는 개발조직의 정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에서 진행하던 것과 달리 상대방의 목소리와 자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비개발직군에서도 자유롭게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Q_ 많은 기업들에서 재택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성공적인 재택근무를 시행해 본 경험자로서,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면?

저희 회사는 조직간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췄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툴(슬랙, 구글 드라이브, 행아웃 등)을 평소에도 도입해 자유롭게 활용해왔는데요. 꼭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야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했던 리모트 제도가 오히려 직원들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고요.

회사가 업무를 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명확히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재택근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택근무는 출퇴근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말고도 다양한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재택근무를 도입해 본 적 없는 사업주라면 근태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택근무 가이드를 공개할게요!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동의를 얻으세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지만,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택으로' 근무공간이 바뀌는 만큼 재택근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특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복무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예시처럼 말이죠!

재택근무제 취업규칙(예시)

제○○조 재택근무

❶ 회사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등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❷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❸ 재택근무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❹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출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월 정기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 휴게시간은 이렇게 산정하세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가능하고, 업무지시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반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데요. 단,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근무나 야간근무가 포함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태관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태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복무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처리 보고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정보 · 보안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제도 도입 컨설팅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나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재택근무자 복무규정(예시)

제○○조 재택근무

❶ 재택근무를 승인 받은 직원은 출 · 퇴근시간 등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❷ 직원은 업무수행 중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으며, 자택 또는 신청한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❸ 재택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인권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하여야 한다.

❹ 재택근무 직원은 업무 계획 및 실적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 ○회 이상 승인권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재택근무 기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재택근무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했는데 '집에서 일하는데 웬 휴가?'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는 없겠죠? 재택근무는 업무공간만 바뀌었을 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고요,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는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을 따르세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식비나 교통비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재택근로자는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으니 교통비 등의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겠죠? 점심식사 역시 집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식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업주는 식사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지 말지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은 한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지 않고요.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답니다. 식비나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실시 전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좋겠죠?

재택근무 중 다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요

재택근무를 하다 다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중 해당 업무가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선반 위에 올려져있는 업무 서류를 꺼내려다 발을 잘못 디뎌 골절상을 입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수행 도중 아이를 씻기다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아직 가까워지지 말아요

코로나19를 타파할 똑똑한 근무방식은 비단 재택근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알아볼게요.

업무 성격상 외근이 많다면

원격근무제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제 말고도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통해 직장 내 거리두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말하는데요. 그중 원격근무제는 사무실도 자택도 아닌 곳에서 통신수단을 이용해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최대한 외근을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업무 성격상 외근이 많은 경우라면 '외근지에서 회사로 복귀하는' 동선을 없애주는 노력마저도 중요할 텐데요. 바로 원격근무제가 이 점을 간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고용노동부는 원격근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투자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도 하고 있답니다.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나 물리적 공간이 필요 없는 직무라면, 재택근무가 아니더라도 원격근무제를 활용해 봄직이 어떨까요?

겹치는 동선을 줄여요

시차출퇴근제

업무 성격상 재택근무도, 원격근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이럴 땐 직원 간 겹치는 동선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밀집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반수업이나 격주수업이 고려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역시 유연근무제의 일종인데요.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오전 11시에 출근한다면, 퇴근시간도 각자 다르므로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꼭 주5일 근무 필요 없다면

선택근무제

선택근무제란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스스로가 근무시간(근로일)을 선택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입니다.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랍니다! 선택근무제는 기업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구직, 일반 사무관리직, 생산직 등 다양한 직무에서 도입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비교적 수월한 소프트웨어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직무에 적용이 용이하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간접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 중입니다. 간접노무비란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가 받게 되는 지원금을 말하는데요.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를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 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중소 ·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늦어진 개학으로 자녀돌봄 난감하다면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이유로 1년간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는 개학연기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근속기간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1개월로 완화시켜 근무기간이 짧아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인데요.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내용도 '1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 한 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대폭 인상됐다는 점인데요. 특히 임신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사용하면 임금감소보전금이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답니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오는 6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대폭 인상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타파해나가는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요. 역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20만 원 → **40만 원**	15~25시간 40만 원 → **60만 원** 25~35시간 24만 원 → **40만 원**	중소기업 60만 원 → **80만 원**

tip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인데요.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한편, 재택근무에 필요한 각종 설비 구축비 지원 제도도 마련해두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후 고용센터의 심사 · 승인을 받고, 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며, 사용의 무기간 3년을 준수하면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아요!

종류	대체인력 인건비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 · 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 · 훈련비용**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코로나19로 근무 형태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된 뒤에도 '재택근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직원은 한 데 모여 근무해야 한다'는 기존 상식이 무너지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성과 저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한시적 제도로 이해하기엔 아쉽겠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글 편집실 | 사진 박찬혁

생활 속 거리두기, 저 '문종업'과 함께 하실래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선 생활방역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회사에선 '거리두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죠? 이에 HEADACHE로 돌아온 아티스트 문종업이 생활방역 전도사로 나섰습니다. 생활방역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만난 문종업과 함께, 슬기로운 간격 조정 들어가 볼까요?

회의 할 때 거리두기

- 회의 전 체온검사를 실시합니다.
- 가급적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합니다.
- 어쩔 수 없이 대면회의가 필요할 때에는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회의실은 환기가 잘 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이 좋습니다.
-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시간을 단축합니다.
- 회의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갖고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시키세요.

일할 때 거리두기

우리 거리
stop 꼭 유지해
날 따라 해봐

근로자는 이렇게!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또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해주세요.
- 동료와 2m 거리를 두세요. 여건이 안 된다면 최소 1m는 거리두기를 하셔야 합니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구호외치기 등의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악수, 포옹 등의 신체접촉은 자제하세요.
- 근무 중 발열, 기침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퇴근하세요.
-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세요.
- 사무실, 작업장은 매일 2회 이상 환기합니다.
-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세요.

사업주는 이렇게!

- 사업장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세요.
-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세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보이는 근로자는 즉시 퇴근조치하고 출근을 중단시키세요.
-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을 게시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세요.
-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및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하세요.
- 모니터 · 책상 · 작업대의 위치를 조정하여 근로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 침방울이 튀는 단체구호는 유도하지 않습니다.
- 출장, 대면회의를 가급적 줄이고 외부인 응대용 간이 회의실을 마련하세요.

Mini interview

문종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활방역 노하우는?

생활 속 거리두기 모델로 고용노동부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생활방역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생기잖아요. 저 역시 신곡 HEADACHE로 활동이 많아지면서 '아차'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덕분에 새로운 노하우를 많이 알게 됐어요. 우선, 금융업무는 가능한 스마트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만약 은행에 가게 된다면 창구 대신 ATM 기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 식당에서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아야 한다는 것 등이 그래요. 마트에서 쇼핑카트를 끌기 전에는 표면을 소독하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좋은 팁이었죠. 코로나19로 신경 써야 할 생활수칙들이 많아졌지만, 기본 수칙을 지켜야 우리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웃을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도 함께 힘내요!

문종업 X 고용노동부
생활방역 뮤직비디오는
고용노동부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Hopeful

28
두근 두근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32
명장으로 우뚝 선,
꿈을 품은 '꾼'

36
우리 회사 노사관계요?
갓 나온 무쇠처럼
뜨겁고 단단합니다

40
헤이 브라더!
'브라더스키퍼'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44
전기기술인력 양성 메카
"취업 걱정 없어요!"

48
나만의 리미티드 에디션!
직접 만들어 봐요

52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56
고용노동 뉴스

글 황정은 | 사진 이옹기

두근 두근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김영준 금융전문강사

31년 동안 금융기관에 몸을 담아왔던 김영준 씨는 지난 2017년 퇴직의 문턱 앞에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은퇴 후 삶을 진작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타박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주기도 했죠. 그랬던 그가 지금은 금융전문강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조직에서 31년간 일했기에 누군가는 저를 전문가라고 불렀지만, 은퇴 후 저는 스스로를 보며 '어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생각했어요.

31년 경력 금융전문가도 막막했던 은퇴 후의 삶

삶의 전 주기에 걸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현실적인 조건은 바로 '돈'일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김영준 씨는 1986년, 자신의 첫 사회생활을 바로 이 '돈'이 흐르는 창구인 은행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31년이 지나서야 회사를 졸업한 그는 '은퇴 후 삶이 이토록 막막할 줄 몰랐다' 고 운을 뗐습니다.

"한 조직에서 31년간 일했기에 누군가는 저를 전문가라고 불렀지만, 은퇴 후 저는 스스로를 보며 '어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생각했어요. 은퇴한 다른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집에서 푹 자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즐기지 못한 쉼을 가졌습니다. 헌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 이제는 뭔가 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퇴직 후 1년. 몸은 건강해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점점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속내를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이끌고 찾은 고용노동부 주관 '신중년 인생 3모작 박람회'. 그는 이곳에서 달라질 내일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가 2017년 말이었어요. 은퇴 후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신중년 인생 3모작 박람회'에 들어섰을 때, 마치 인생 2막에 대한 모범답안을 찾은 것 같았죠. 제 앞에 서 있는 강사 분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자신의 사업에 대해 A부터 Z까지 얘기하는 그 분의 솔직함이 대단해 보였고 나도 저런 모습으로 강연장 위에 설 수 있을까, 작은 물음표를 갖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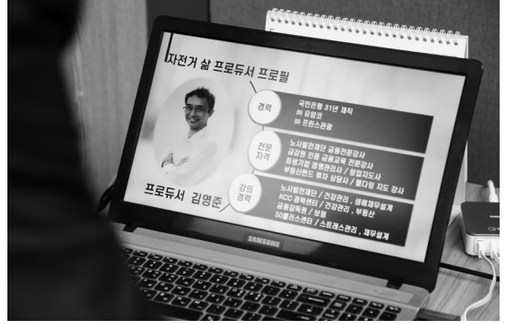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출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지기까지 했죠.

금융전문가에서 금융전문강사로 피어난 인생2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강의하는 일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적지 않게 해 본 그였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후배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및 상담 등 꽤 많은 경험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되는 것은 자신감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는 일이기에, 시작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출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지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노사발전재단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시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 연락처를 남기고 왔는데, 이를 보고 연락을 준 것이었죠. 골자는 새로운 직업 찾기를 담당 컨설턴트가 함께 돕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양한 심리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 등을 통해 저에게 어떤 일이 어울리는지 알려주셨고 다행히 강사라는 직업이 제 성향과도 잘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30년 이상의 금융경력이 있으니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노사발전재단 금융전문강사 과정 등 여러 과정을 추천해주셨는데요. 그 중 하나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금융전문강사 과정이었어요."

금융전문강사 과정은 이름 그대로 금융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김영준 씨는 이 시간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PPT 만드는 법, 강의하는 법, 선배 강사들의 노하우 등이 그것이었죠.



자산은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일 뿐

금융감독원에선 강사로서의 실용적인 능력을 배우고, 집에 와서는 강의 콘텐츠를 고민하며 점점 금융전문강사로 거듭나기 시작한 김영준 씨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모아둔 돈을 남은 기간 동안 잘 쓸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은퇴 후 가장 큰 자산은 재물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재무구조보다 건강을 먼저 망쳐요. 건강을 지켜야만 갖고 있는 자산으로 더욱 풍족한 노년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어디까지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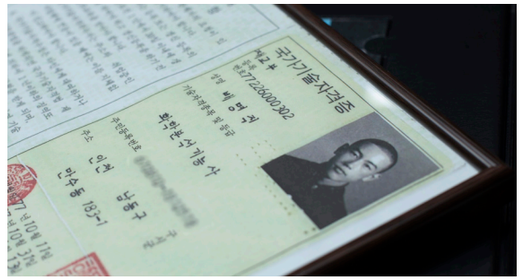
스스로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김영준 씨. 앞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울림을 주는 금융전문강사로 거듭나고 싶다는 그는 생애 전 주기가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한 돈'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초면에 돈 얘기를 꺼내 실례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돈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그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돈에 대해 유쾌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재무구조보다 건강을 먼저
망쳐요. 건강을 지켜야만 갖고
있는 자산으로 더욱 풍족한
노년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장으로 우뚝 선,

꿈을 품은 '꾼'



막연히 사장을 꿈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로 바람을 이루려 노력했고, 표면처리 업계의 '꾼'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표면처리 직종 명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기양금속공업㈜ 배명직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인의 길'을 발견하다

배명직 대표는 1959년, 경상북도 예천의 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쌀밥조차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궁핍하던 시절이었죠. 그 무렵 태어난 사람들이 으레 그렇듯, 배명직 대표 또한 가난에 굶주려야 했습니다. 솟아날 구멍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낙심한 그는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죠. 놀고 싸우는 데 빠져 살다 보니 어느새 고등학생이 됐다는 그는 문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고민과 함께 덜컥 겁이 났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때 마침 담임 선생님이 자격증 공부를 권하셨어요. 노력 끝에 화학분석기능사 2급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보니 '나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를 계기로 기술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죠."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 1977년 방위산업 도금업체에 취업한 그는 입사 1년 만에 계장으로 승진합니다. 고졸 사원 가운데는 아무도 이루지 못한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되짚어 보면 운명 같은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줄곧 방위산업 표면처리를 주된 업으로 삼고 있으니 말이에요."

공장 한편에 라면박스를 깔고 숙식하며 일할 정도로 도금

기술을 익히는 데 사활을 걸었다는 배명직 대표. 그는 초고속 승진 이후 기술 · 생산 · 총무 · 구매 · 영업 · 품질관리 등 공장 내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두루 익혔습니다. 소년 시절 품었던 '사장'이라는 꿈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열정과 용기로 일군 전화위복

그야말로 미친 듯이 일하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닥쳤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던 공장이 한순간에 부도를 맞은 것입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망연자실할 만한 어려움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위기 앞에 당당했습니다. 이참에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겁니다. 그렇게 배명직 대표는 1983년, 27세 나이에 명일금속을 설립하며 사업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2년 뒤에는 삼원금속의 대표로 취임하며 세를 불렸고, 자신이 세웠던 명일금속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거칠 것 없이 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군포시에 있던 공장은 금세 수주량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됐고, 안산도금단지를 세우고자 도금업체 대표 12명과 힘을 합쳐 공사에 돌입했죠. 그런데 돌연 신축공장이 압류됐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 초기 얼떨결에 해줬던 채무보증이 말썽을 일으켰던 거였죠. 그간 이룬 것들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지만, 지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기사회생했고 공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의 위기를 넘긴 그는 '다시 떨치고 일어난다'는 의미를 담아 사명을 '기양금속공업㈜'으로 변경하고 다시금 방위산업 표면처리에 매진했습니다. 1992년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린 끝에 흔들리지 않는 성공가도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도전 DNA'로 명장에 올라서다

주변에서는 겨우 30대 초반에 성공을 거둔 그를 '남부러울 것 없겠다'며 치켜세웠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여전히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실전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배웠기 때문에 기술 부분에서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전 기술을 뒷받침할 이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늘 가슴 한편을 무겁게 했어요. 정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담당자와 소통할 때면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애를 먹곤 했거든요."

고심 끝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기로 결심, 35세가 되던 1994년 그는 인천의 한 전문대 표면처리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회사 운영과 학업 병행이 쉽지 않았지만, 타는 목마름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덕분에 2000년과 2001년에 특수도금기능사와 전기도금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나아가 세 번의 도전 끝에 표면처리기능장의 자리에도 올랐고, 한국산업기술대학원 신소재공학과에 진학해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불타는 학구열로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배명직 대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표면처리 업계의 선두주자로 올라섰습니다. 2007년 3월 제8호 기능한국인에 선정됐고, 그해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표면처리 직종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최고의 직함도 받았습니다. 그는 "도전을 망설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거친 세월을 정면 돌파하며 뼛속 깊이 새긴 '도전 DNA'가 그를 명장의 길로 이끈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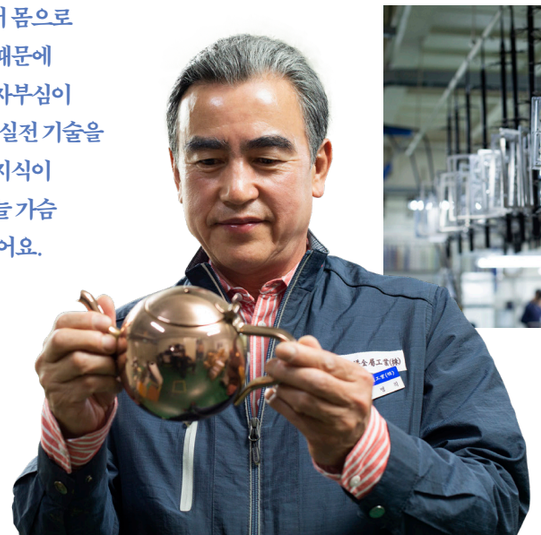
끝없는 발전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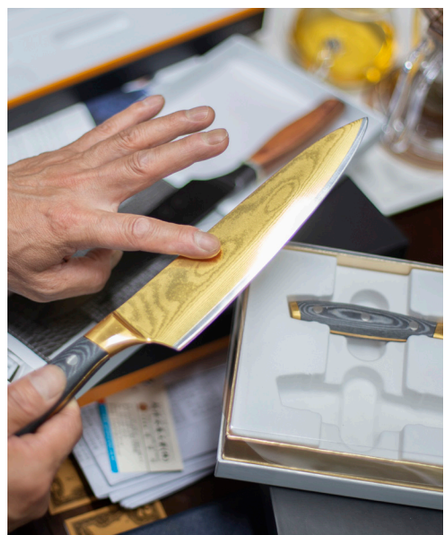
도전은 배명직 대표의 운명인가 봅니다. 명장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성장하는 앞날을 꿈꿉니다. 2007년 비싸게 주고 산 유명 독일제 칼이 6개월 만에 녹스는 걸 보고 '내가 가진 표면처리 기술로 녹슬지 않는 칼을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자신의 이름을 건 주방용품 브랜드 '골드 마이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제품 중에서도 티타늄 · 순금으로 표면처리를 하고 세라믹으로 코팅한 뒤 은나노 물질을 첨가한 '불멸의 황금칼'은 녹슬지 않고 항균력도 뛰어난, 표면처리 기술의 정수를 유감없이 선보인 대표적 제품입니다.

"골드 마이스터의 성공과 함께,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학교와 고등학교 교수로서 후배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고, 현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능한국인회의 장학금 규모도 키웠습니다. 스스로 '기술인 성공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더 많은 인재들을 기술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기술인이 꿈을 품으면 '꾼'이 되고, 자연스럽게 더 높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진화하면 명장의 영예와 성공은 단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꿈꾸는 꾼이 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낸 배명직 대표. 그는 기술인 후배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나라가 '기술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그도 열심히 꿈꾸고, 꿈꾼 만큼 성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는 여전히 끝없는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실전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배웠기 때문에 기술 부분에서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전 기술을 뒷받침할 이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늘 가슴 한 켠을 무겁게 했어요.





편집 임기현 | 자료 · 사진 제공 레이버플러스

우리 회사 노사관계요?
–
갓 나온 무쇠처럼 뜨겁고 단단합니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영남산업㈜은 무쇠 강판을 샤프심보다 더 얇게 펴 동그랗게 감은 냉연코일을 만드는 곳입니다. 지난 해 노사문화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곳이기도 하죠. 담금질을 할 때마다 더 단단해지는 쇠처럼 영남산업㈜의 노사관계가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쇠 특유의 단단함과 아직 식지 않은 따끈한 잔열이 함께 느껴지는 곳. 영남산업㈜을 만났습니다.

18년 무재해, 탄탄한 노사관계가 비결!

뜨거운 쇳물을 얇게 펴서 만든 열연 강판을 상온에서 다시 한 번 얇게 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냉연공정을 거친 강판들은 한층 강해진 내구성을 자랑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모두 이 강판들이 사용됩니다.

냉연공정을 거친 강판들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주원료가 되는 만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작업을 영남산업㈜이 맡고 있답니다. 영남산업㈜은 포스코가 인정한 우수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안전사고에도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했는지 '18년 무재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죠. 높은 기술력과 안전시스템 만으로도 신뢰가 물씬 묻어나는 기업이지만, 사실 영남산업㈜의 주특기는 따로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탄탄한 노사관계가 바로 그것이죠.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지난해 '노사문화대상'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영남산업㈜은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영남산업㈜, 위기를 기회로 삼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장관상' 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긴 했지만, 처음부터 자랑할 만 한 노사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51개 협력사가 경쟁하는 구조 속에 있다 보니 노사관계를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죠."

경쟁이 일상이 된 근무환경 속에서 2010년 철강업계에 들이닥친 경기 한파는 노사관계가 한층 얼어붙는 계기가 되었다고 민영빈 안전팀장은 회고합니다. 인원감축, 임금동결 등 그야말로 일할 재미를 찾기 어려운 힘든 시절이었는데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은 이 시기에 비로소 시동이 걸렸습니다.

"노사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었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꾸준히 늘리기 시작했죠."

민영빈 안전팀장은 2017년 교육훈련 투자비율이 0.77%(6,930만 원)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0.95%(9,520만 원)까지 올랐다고 말합니다. 지난해에는 총액이 1,200만 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비용 대부분이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수입구조를 고려하면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투자는 계속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핵심직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학업을 병행하는 직원에게는 퇴근시간을 단축해주는 등 자기계발의 기회도 폭넓게 제공한 것이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단행했던 제도들은 이내 곧 영남산업㈜의 탄탄한 조직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영남산업(주),
이렇게 노사관계를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병행하는 직원이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퇴근시간 단축제도

핵심직무 국가기술자격
취득한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직원 가족들까지 참여해요!
**경영설명회 및
현장 견학**

자기계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연 3회 15명 규모의 해외
우수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직원의 가족까지 '내 사람'으로 여기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보장한 덕분일까요.

영남산업㈜이 지난 5월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건데요. 무려 포항철강업계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이룬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없이 뜻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영남산업㈜의 따뜻한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영남산업㈜의 '가족친화경영'도 눈여겨볼만합니다.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니라 정말로 한 가족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 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까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다양한 교양강좌와 체육대회, 시네마데이트에 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상황과 근무현장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5월이나 연말에 직원 가족들을 불러 모아 올해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있어요. 직원들에게 돌아간 몫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회사 상황을 설명해주죠. 경영설명회에 참석한 아내들은 회사가 투명하게 공개해 주는 덕분에 남편들이 비자금을 못 챙겨서 좋다고들 말씀하세요. 반대로 직원들은 아쉬워하는 것 같고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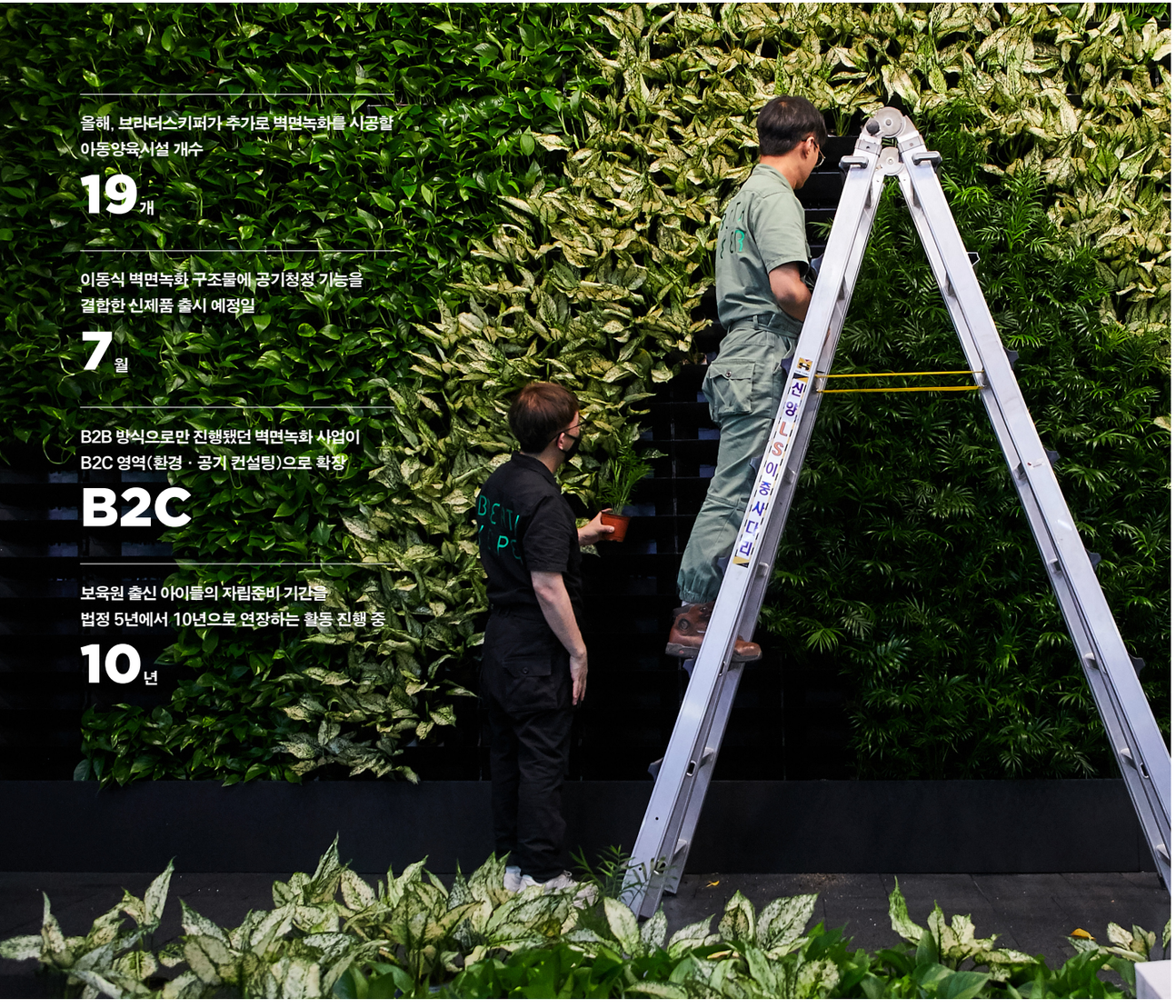
직원 가족들이 농담을 던질 정도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는 경영설명회는 현장 견학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경영설명회보다 아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현장 견학인데요. 현장의 안전성을 함께 둘러보면서 안심하는 아내의 모습을 확인한 남편들은 더욱 힘을 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현장 견학에 그치지 않고 영남산업㈜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물인터넷 무인 청소 로봇, 밀폐공간 전용 진공흡입 장비, GPS 수중 청소 로봇, 고소작업 전용 장비 등을 고입해 고위험 작업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출액의 약 11%를 성과배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영남산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성과를 이룩했다는 생각 없이는 쉽게 하지 않을 방침인데요. '내가 좋으면 회사도 좋고, 회사가 좋으면 나도 좋다'는 노사상생의 기본 원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 윤진아 | 사진 이도영

헤이 브라더!

‘브라더스키퍼’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하게 주어지는 ‘물’이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희망찬 후반전이 펼쳐지는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가 그 주인공입니다.

보육원에서 지낸 시간도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보육원에서 인생의 초반을 지낸 아이들은 열여덟 살이 되면 500만 원을 들고 시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방 한 칸 얻기도 힘든 돈으로 삶을 꾸려나가야 할 아이들에게 세상은 커다란 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브라더스키퍼는 이러한 처지에 놓인 보호종결아동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는 회사입니다. 채용 우대사항도 ‘시설 퇴소생’이라고 하는데요. 브라더스키퍼의 수장 김성민 대표는 심지어 보육원에서 지낸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브라더스키퍼의 목적은 시설 퇴소생을 전문가로 만들어 후배 퇴소생들을 돕는 인재로 키워내는 데 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면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는 경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회사 이름에는 ‘보호종결아동의 지지기반이 되어주고, 함께 일하며 치유하고 성장한다’는 다짐이 담겨있습니다.

녹색공간 만나면, 브라더스키퍼를 기억해주세요

브라더스키퍼의 첫 브랜드 ‘브레스키퍼(Breath Keeper)’는 실내 · 외 수직정원, 화분 임대 등 다양한 조경사업을 진행합니다. 삭막한 도시를 녹색 자연으로 바꿔나가는 건데요. 공기정화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무척 보람 있는 일입니다.

브레스키퍼의 흔적은 전국 방방곡곡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취재 당일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던 ‘서울시민청’ 역시 이들의 땀이 고스란히 배여 있는 도심 속 녹화공간이죠.

“서울시청 지하에 자리한 서울시민청은 지하철과 연결돼 다소 어둡고 황량한 공간이었어요. 시공 전 컨설팅을 통해 공기의 질을 파악하고, 이 공간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면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을 배치했어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잠시 쉬어가는 아늑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동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에도 브레스키퍼의 손길이 뻗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국 아동양육시설 19개소에 벽면녹화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이달 안에 2명의 보호종료아동을 추가로 고용해 ‘형제를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한편, 브라더스키퍼는 벽면녹화 기업에서 ‘환경(공기) 컨설팅’ 업체로 나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서울시민청의 얼굴처럼, 또 다른 얼굴을 준비하는 브라더스키퍼! '숨'까지 생각하는 고마운 기업의 탄생입니다.

브라더스키퍼에는 실패를 가르치는 사장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청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들은 브라더스키퍼 덕분에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도 탐내는 인재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집을 온통 식물로 꾸며놓고 살아요. 식물을 늘 가까이에 두고 키우면서 연구하고,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거죠."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는 직원들을 보면서 본인 역시 힘이 난다고 말하는 김성민 대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직접 차려 먹을 수 있도록 요리교실도 열고, 정서적 안정과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독서모임도 진행합니다.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명절도 다 같이 보낸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데에는 김성민 대표 자신도 보육원에서 자란 경험 때문입니다.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받은 상처를 드러내 치유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스스로를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중요하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족이나 친구, 안정적인 경제상황이 지지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호종결아동은 이런 지지기반이 없어서 회복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다보니 한 번 실패하면 끝없이 추락하기가 쉽죠. '실패해도 좋다, 기다려주겠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거듭 알려주곤 해요.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해도 좋다고 말하죠."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세요

사장님이 아니라 '형'으로 '아빠'로, 그리고 '진짜 가족'으로 회사를 꾸려나가는 김성민 대표는 재정훈련이 안 돼 사채나 각종 고소 · 고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법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송사를 해결하지 못해 교도소를 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보육원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아이들이 2,600여 명 정도 돼요. 고작 열여덟 살에 혈혈단신 사회에 첫발을 내딛다 보니,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나쁜 일에 쓰였다든지 하는 것처럼요. 사람을 믿고 도와준 아이들이 오히려 범죄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회사를 이끄는 데에도 손이 모자란 김성민 대표가 2,60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 힘을 쏟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간담회에 꾸준히 참여해 보호종결아동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성과가 바로 '보호종결아동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됐다'는 사실입니다.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취업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보육원 출신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숙려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에서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해주곤 있지만, 살 집을 구하고 나면 한두 달 안에 사라지는 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전문 기술이 없는 아이들을 받아줄 곳은 별로 없어요. 결국 제대로 된 자립을 하려면 대학도 다니고 전문기술도 배워야 하는데, 현재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 5년은 너무 가혹한 시간이죠. 여차저차 4년제 대학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학비를 벌면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5년 안에는 졸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하지만 10년은 제대로 된 자립준비가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죠."

아쉬운 보육환경 때문에 사회로의 진입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끊고 싶다는 김성민 대표는 보육원 출신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끊어주길 부탁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서 직업능력이 폄하되면 안 된다는 것. 서로 보듬어 기대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그들의 진짜 자립을 돕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지켜주는 키퍼,
바로 당신입니다!

이요셉

질문을 듣자마자 현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료 '치자(윤재근)'가 떠올랐어요. 팀장으로서 후배들을 돕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윤재근

하루하루가 지겨워 주어진 대로 살다가 브라더스키퍼에 입사한 후 '내일이 기대되는 행복한 삶'으로 변했어요. 생계를 위한 직장을 넘어 브라더스키퍼는 '내 삶의 가치' 그 자체입니다.

김효성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 아내야말로 가장 소중한 키퍼죠. 혼자였던 제 삶에 들어와 가족이 되어주고 함께 걸어주는 아내가 제 삶을 흔들림 없이 지탱해줍니다.

이현기

브라더스키퍼의 모든 구성원이 저의 키퍼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 제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마다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거든요.

권용수

동료 한 명 한 명이 다 저의 키퍼이지만, 그중에서도 '치자'가 많은 힘이 됩니다. 내 고민을 귀담아 들어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선물입니다.

글 윤진아 | 사진 이도영

전기는 현대사회에 없어선 안 될 에너지원이지만, 전기만큼 다루기 위험한 에너지원도 없습니다. 발전 · 변전 설비의 대형화, 신소재 발달, 내선설비 고급화로 전기 관련 시장은 나날이 확장 중인데요. 이에 위험한 전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가 '전기내선공사'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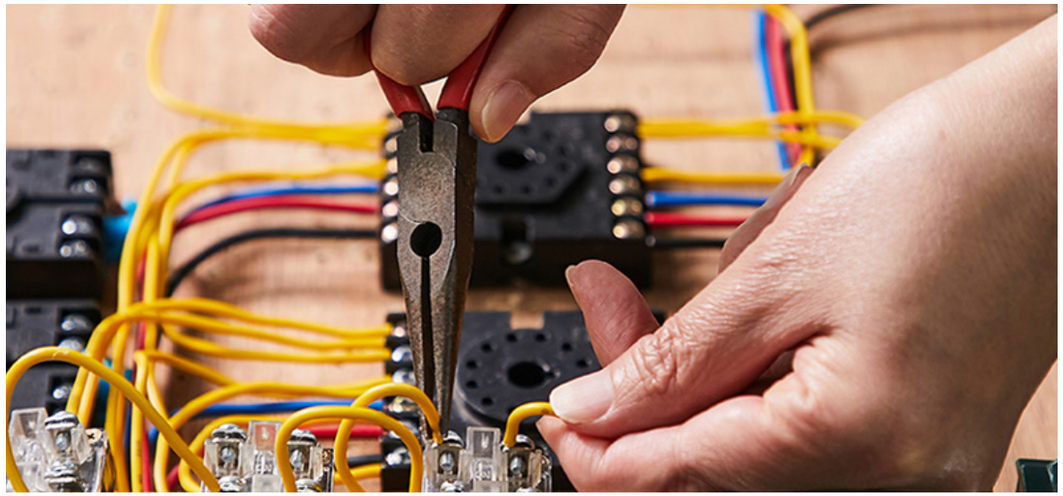
전기기술인력 양성 메카
"취업 걱정 없어요!"

미래시장 정조준한 전기내선공사, 성남캠퍼스에서 배워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전진기지답게 실습실 구석구석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전기 분야 산업은 일정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고층빌딩이 늘면서 전기시설물 관리 · 전기공사 전문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전국 스마트전기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성남캠퍼스는 수도권 지역 2년제 학위과정 캠퍼스에서 전기 직종으로는 유일하게 신중년 재취업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일 야간과정 운영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성남캠퍼스의 '전기내선공사' 과정은 전원설비(수변전 · 예비전원), 전기공급설비(배전 · 간선 · 배선), 부하설비(동력 · 조명 · 전열 등), 인입전선로, 약전 및 방재설비 등을 시공 · 시운전 · 유지 · 보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합니다.

지역 산업구조 정밀 타깃팅! 높은 취업률 인기

높은 취업률은 성남캠퍼스 전기내선공사 특화과정의 자랑입니다. 우선, 전기기능사자격증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73.5%의 취득률을 달성했는데요. 수도권 취업률은 평균 58.3%를 기록, 교육생의 절반 이상이 전기내선공사 특화과정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마련한 교육과정이 바탕이 됐습니다. 경기 지역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전기시설관리업체, 전기공사업체, 전기제어기 판매업체 등을 타깃으로 정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한 건데요. 수료 후에는 인근 지역 지자체와의 연계는 물론 폴리텍 기업전담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취업 알선으로 중장년의 재취업을 전방위로 지원합니다.



전기내선공사 교과과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기 · 전기설비 · 법규 이론 바로 알기

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각종 전기기기의 원리 · 구조 · 특성을 이해하고, 부하 종류에 따른 기기 선택 및 운용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시설물 관리 및 전기공사 실무에 필요한 각종 배전이론과 공사방법을 익히고 관련 법규를 숙지해 전기설비의 설계 · 시공 능력을 갖춥니다.

시퀀스 제어 실습

전기 배선에 필요한 기구 위치, 배선 경로, 결선 위치를 파악하고 배/결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기계설비용 전동기 운전 · 제어를 위한 MCC반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전원 공급 배관과 배선을 공사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전기설비 실습

전선과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전선관, 레이스웨이, 케이블 트레이, 기타 부속품 등을 시공하는 기술을 습득합니다. 또, 전기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조명설비나 동력설비 등의 전선과 케이블을 적합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도록 지도합니다.

PLC 실습

전력선통신의 기본적인 입 · 출력 명령어를 사용해 기계장비와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수정 · 보완 등 단계별 실습을 거듭해 시설 관리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능력을 갖춥니다.

수변전 설비 실습

수도 시설에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수변전 설비란 수도시설에서 전력회사로부터 고압의 전기를 공급받아 변전한 후 세부 시설로 공급하는 설비인데요. 성남캠퍼스가 자체 보유한 수변전 실습장치를 활용해 수변전 설비 구성기기를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익힙니다.

스마트전기과 이효섭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Q. 전기내선공사 교과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약 3개월, 360시간 과정으로 전체 교과과정의 70% 가량을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전기와 관련 없는 직종에서 일하신 분들도 누구나 제한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전공 불문 면접 100%로 기수별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Q. 취업 가능한 산업군이 궁금합니다.

우선,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등 유용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수료 후에는 빌딩/아파트 전기관리원을 비롯해 전기공사, 정기 ·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설비 유지관리 등의 분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Q. 중장년층에게 취업의 문턱이 높지는 않을까요?

전기 관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기술 기반의 전문인력인 만큼, 중장년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특별히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연륜과 열정으로 무장한 중장년층은 한층 꼼꼼하게 임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전기내선공사 과정의 실무 중심의 교육도 취업 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립니다.

Q. 성남캠퍼스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실습실과 기자재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죠. 시퀀스 실습장치, 전력품질분석기, 저항성 누설전류계, 보호계전회로 시험기, 접지계통 누전실습장치, 전력보호 감시장치, 전력IT제어시스템 실습장치, 전력IT제어솔루션 실습장치 등 전기내선공사에 필요한 제반 장비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력보호 실습장치도 자체 보유하고 있고요. '배울 맛 나는' 교육환경 덕분에 교육생들의 학업 열기도 뜨거운데요. 성남캠퍼스에서 당당한 전기기술자로 발돋움하길 바랍니다.

나만의 리미티드 에디션! 직접 만들어 봐요

글 황정은 | 사진 이도영

"가죽공예는 아무래도 재료가 '가죽' 이다보니, 수강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급 취미'로 불리곤 합니다. 때문에 수강이 망설여지는 분야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일배움카드와 함께라면 수강비 걱정도 덜고, 제2의 직업도 모색할 수 있어요!"

워라밸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취미활동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죽공예는 최근 몇 년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가죽공예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답니다!

김미경 님_수강생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가죽공예를 배우기 전에는 패브릭을 이용한 공예를 배웠어요. 그러던 중 가죽공예에 관심이 생겨 학원에 등록했는데요, 기대보다 훨씬 더 만족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행위다 보니 결과물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커지거든요. 돈 주고 산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도 하고요. 가죽공예 수강료가 만만치 않아서, 내일배움카드가 없었다면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개인 공방을 차릴 수도 있으니, 다른 분들께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허계현 님_수강생

제가 워낙 가죽제품을 좋아하는 편이라,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구입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내가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무작정 학원에 등록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길 참 잘 한 것 같아요. 결과물이 고급스럽고, 덕분에 소장가치도 높거든요. 물론 가죽이 뻣뻣하고 두껍다보니 만드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명장의 손이 거친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에 힘입어 열심히 배우려고요. 나중에 인터넷 쇼핑몰 오픈하면, 〈내일〉 구독자 여러분도 많이 구경와 주세요!

창업까지 모색해볼 수 있는 가죽공예! 명품에 준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기초를 확실히 다지는 게 중요하겠죠? 김미경 씨와 허계현 씨가 다니는 '리드가죽공예학원'에서 가죽공예의 기초를 알아봤어요. 가죽공예에 필요한 기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재단

가죽공예의 출발은 재료 손질입니다. 가죽공예에서는 이 과정을 '재단' 이라고 하는데요. 재단 시 중요한 점은 칼을 잘 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칼의 기둥을 정확히 받쳐야 묵직한 힘으로 정교하게 가죽을 자를 수 있죠. 칼을 가죽과 정확히 수직이 되게 쥔 후 재단해야 가죽의 옆면이 수직으로 깔끔하게 잘린 답니다.

목타

'목타'란 가죽에 구멍을 뚫는 도구입니다. '그리프'라고도 하는데요. 이 도구를 사용해 가죽에 구멍을 뚫는 이유는 바늘이 지나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쉬운 바느질을 돕는 기초 작업인 셈이죠! 가죽은 일반 원단과 달리 두껍고 질기기 때문에 미리 구멍을 뚫어놓지 않으면 바늘이 들어가질 않는 답니다. 그래서 포크처럼 생긴 목타로 미리 바늘구멍을 내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목타는 가죽과 수직이 되도록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카로운 목타날이 옆으로 비껴나가 손을 다칠 수 있어요.

본드칠

바느질 작업 전, 가죽과 가죽이 서로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본드칠을 해줍니다. 이 때 본드의 양은 최대한 얇게 펴 발라야 합니다. 본드칠이 두꺼워지면 바느질이 힘들어질 뿐 아니라, 제품의 완성도 또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본드칠을 하기 전 가죽면을 사포로 살짝 긁어내보세요. 훨씬 접착력이 높아진답니다!

피할

두꺼운 가죽을 얇게 만들기 위해 가죽을 벗기는 일을 '피할(皮割)' 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죠. 가죽은 각 부분마다 두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두께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하는데요.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피할기'라는 기계랍니다. 피할기를 사용할 때는 손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세요. 그래야 가죽이 울퉁불퉁하게 피할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답니다.

엣지코트 바르기

가죽의 절단된 옆면으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얇은 막을 코팅해 주는 과정을 '엣지코트 바르기' 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가죽제품의 영구성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습기에 약한 가죽의 절단면을 엣지코트가 막아줘 가죽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기 때문이죠.
엣지코트는 여러 번 꼼꼼하게 덧발라야 제 역할을 하는데요. 한 번 바른 후 30~40분 동안 충분히 말렸다가 다시 덧바르는 과정을 약 4~7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드칠과 마찬가지로 엣지코트 역시 매우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세 리드가죽공예 원장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죽공예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다는 것을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닌가 싶더군요.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다보니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본인만의 기술을 이용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학원 수강생 가운데 취미로 배우는 경우는 20~3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 2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준비 중이랍니다. 저 역시 과거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일하다가 가죽 분야로 넘어 온 케이스고요. 수강생 대부분이 주부, 프리랜서, 직장인이라는 점을 보면 더욱 잘 이해가 되시죠?
가죽공예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원하는 소품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선물로도 매우 값지고요. 나아가 본인만의 가게나 공방을 차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갖고 임하기보다, 취미로 즐기면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신이 가죽공예와 잘 맞는지도 가늠해 보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도 파악하면서요.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하기보다는 삶의 재미를 하나 더 찾는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나도 모르는새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가죽공예 배우기, 쉽지 않았죠?
하지만 리드가죽공예학원에서는 가능합니다! 초급반과
심화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초급반에서는 지갑 등의 작은
소품을 만들고 심화반에서는 가방 만드는 전 과정을 배울 수 있죠.
내년에는 패턴반도 개설한다고 하니 그동안 생각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려 보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리드가죽공예학원(https://blog.naver.com/74yskim) 으로
문의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Point

누구나 신청 가능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유효기간 5년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 없이 5년간 사용 가능

훈련비 지원
저소득층 500만 원,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전액 지원

개인맞춤 수강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 수강

HRD-Net 실시간 확인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 실시간 확인

자부담 비율 동일 적용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자부담 비율 동일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훈련과정 수강 신청의 경우 140시간 이상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요. 신청은 6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5월 사이 소득 ·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 · 프리랜서, 2)영세 자영업자, 3)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1) 특고 · 프리랜서: 2019.12월~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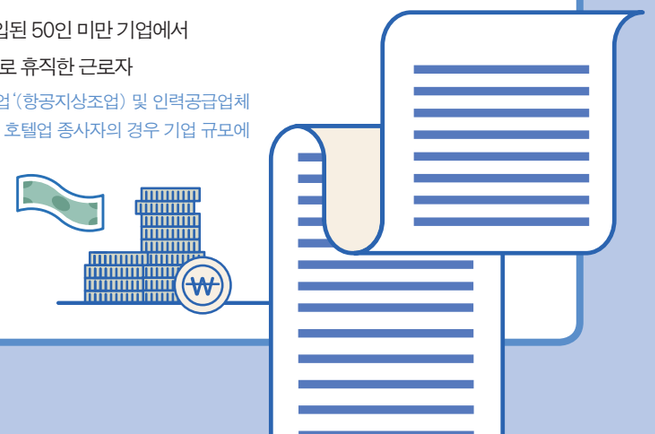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 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 항만 · 시장 · 철도 ·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 가스 ·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 퀵서비스기사, 가사 · 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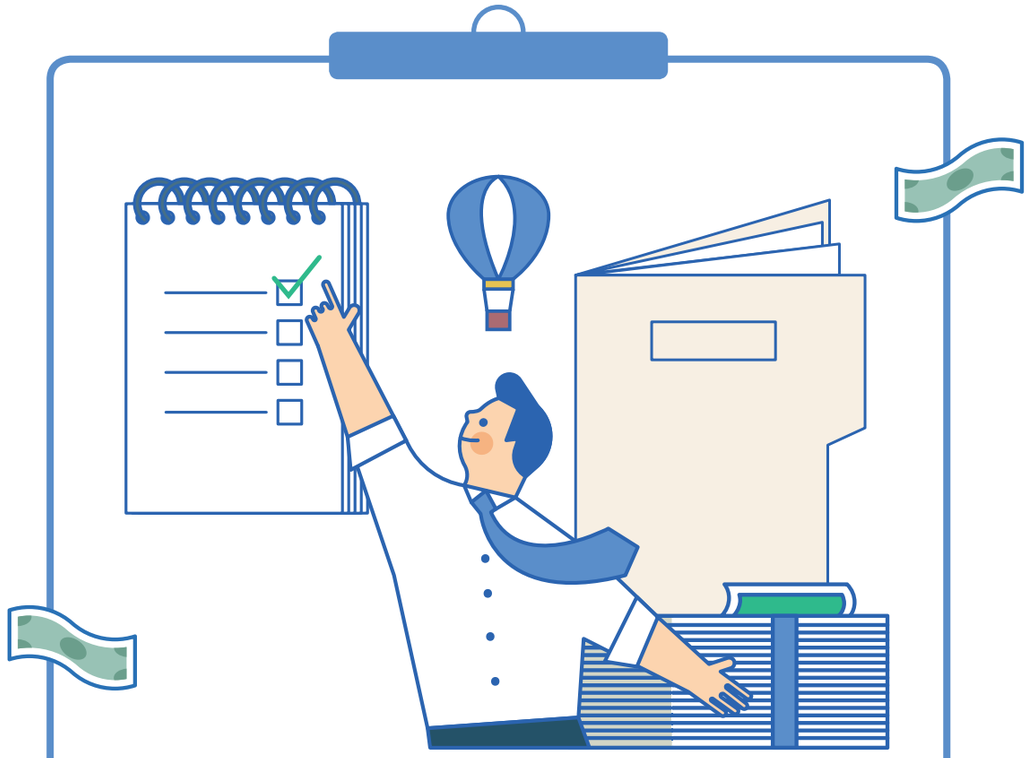
2) 영세 자영업자: 2019.12월~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 향락 ·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소득구간별 지원금 기준

특고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 · 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구간〉			〈2구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연매출 **1.5억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연매출 **1.5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소득 · 매출	또는	**무급휴직일수**	**소득 · 매출**	또는	**무급휴직일수**
25% 이상 감소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50% 이상** 감소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신청기간 및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PC는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한데요. 다만, 6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됩니다.

만약,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라면 7월 1일부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꼭 지참하세요!

5부제

월	화	수	목	금	토 · 일
1,6	2,7	3,8	4,9	5,0	모두

중복지원 여부

아래와 같이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3월~5월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ex_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 원 수급 시(20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 원 지원
-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20.3~4월 간 60만 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 원 지원
-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 · 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 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 원 지원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 X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News

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책회의를 통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확대 · 정비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고 말하고,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는데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첫째, 특고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금년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여 특고, 플랫폼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둘째,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작업에 착수합니다.

셋째,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등의 추가 적용시기 및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 ·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국민들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 · 청년들과 장기 실직상태의 국민들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후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② 예술인 대상 고용안전망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술인 대상 고용안전망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인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생계위협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고, 이에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이 예술인까지 확대되게 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 ·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 월 50만 원씩 총 3개월간 지원하는 건데요. 사업 신청은 6월 1일부터입니다.

③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초고령화로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의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간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로 연계하는 것이 어떠한 성과로 연계되는지 다양한 퇴직 전문인력 활용사업을 진행해왔는데요. 이를 토대로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업종별 · 기업별 수요분야에 따른 전문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직 전문인력을 기술자문 전문인력으로 육성→적합 중소기업으로 매칭→사후 피드백을 통해 관리하는 운영모델을 추진합니다. ②전문성을 활용한 직업훈련교사(매년 500명, 한기대), 연구실 안전전문강사 등 중소기업 차세대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③전문성 있는 퇴직자를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 · 공공서비스 분야로 매칭하고, ④단계적으로 퇴직 전문인력-중소기업 매칭기능을 강화한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재갑 장관은 "초고령사회의 도래까지 불과 5년 남짓한 상황에서 고령인력을 복지제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경제적 · 사회적인 큰 손실"이라며,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등 수요분야로 적극적으로 매칭하는 이번 대책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④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5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장애유형 ·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촘촘한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 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 · 청각, 중복장애 등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 · 훈련지원 등처럼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셋째, 장애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농업 관련 직업능력 개발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합니다. 넷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를 재정의하고, 장애인 맞춤 노무서비스를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를 신설('20년 3개소)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5월 18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판매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기획전은 현재 '네이버 해피빈' 누리집(https://happybean.naver.com)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에스(GS)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등 티브이홈쇼핑사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기부방송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50여 개 상품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표 온라인상점(e-store 36.5+) 및 기존 온라인상점(쇼핑몰) 등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점(e-store 36.5+, www.sepp.or.kr)에서는 특별판매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한 소비자는 할인권(3천 원~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온라인상점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이천 화재사고, 사고 수습을 넘어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지원 · 사고 수습 등에 대한 각 부처 · 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첫째, 현장지원단(고용노동부 · 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사고 조사 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합니다. 셋째, 유족과 사업주 간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상 이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산재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넷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 · 국토부 · 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3개 분과)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수본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확인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Healing

62 영화 〈기생충〉, 이 중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66 오묘한 당신의 심리, 도대체 왜일까?

68 따르르릉~ 전화, 잘 받고 계십니까?

70 사장님과 제 생각은 늘 조금씩 다르네요…

74 우리 사이는 2m가 딱 적당해요! 심심할 땐, 집콕 챌린지 하세요!

76 에어컨 청소하셨습니까?

78 이불 밖은 아직 위험해요. 집에서 즐기는 착한 놀이

82 애독자 모의고사

글 임기현 | 사진제공 CJ엔터테인먼트

영화 〈기생충〉, 이 중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한국 영화 100년사를 새로이 쓴 영화 〈기생충〉은 두 가족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통해 공생과 기생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자본주의에 의해 살아지는 이 시대, 그 속에 숨겨진 인간들의 서열을 통해 노동법의 현주소를 알아봅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년에 꼭 이 대학에 갈 거거든요."**

"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흑과 백, 넘지 못할 선이 정해지지 않은 아슬아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영화 '기생충'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작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식구가 모두 백수로 살아가는 기막힌 인생사는 박사장(이선균 분)네 집에서 모두 해소되는 듯 보입니다.

고액 과외를 하게 된 장남 기우(최우식 분)와 곧이어 미술치료교사로 과외를 시작한 기정(박소담 분), 그리고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로 각각 취업한 기택(송강호 분)과 충숙(장혜진 분)까지… 으리으리한 박사장네 저택에 입성하게 된 기택 가족은 모처럼 만의 고정수입에 '만세'를 부를 지경인데요. 하지만 고정수입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들 모두가 근로자의 신분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외를 하는 기우와 기정, 운전기사로 일하는 기택, 가사도우미로 취직한 충숙 중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체크해보세요.

고액 과외를 하는
☑ 장남 기우

운전기사로 취업한
☑ 기택

미술치료교사로 근로를 시작한
☑ 기정

가사도우미로 취업한
☑ 충숙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잘 알고 계시나요?

정답은, 운전기사인 기택입니다.

과외하는 기우와 미술치료교사로 근로를 시작한 기정, 그리고 가사도우미 충숙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반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하게 된 기우와 기정은 아무리 고액 과외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한' 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위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충숙은 아예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가사노동도 엄연히 노동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는 가사를 법상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성격상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국가적 감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별개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채용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친족이라 함은 민법 777조에서 규정하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동거라 함은 반드시 동일 가정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면서 생활을 공존하는 것을 말하고요. 동거 친족만을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용종속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형식적 구별이 곤란한 까닭인데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 외에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전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답니다!

'보통 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적용범위가 또 달라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기택이 운전기사로 취직하기 위해 박사장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간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기택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명분을 확실하게 획득하는 장면인데요.
다만 기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갖는 권한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주휴수당도 못 받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며, 주52시간도 적용되지 않죠. 그 이유는 임원의 운전기사는 일의 특성상 일을 하다가 쉬는 경우가 많고, 일을 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지만, 근무시간과 쉬는 시간의 편차가 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래도 이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아예 '유급휴일'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역시 유급휴일이 보장된다는 사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역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 하루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는 사실!

오묘한 당신의 심리, 도대체 왜일까?

인간의 심리는 오묘합니다. 같은 현상 앞에서 각자 다른 감정과 심리가 발동하죠. 깊고 오묘한 인간의 심리를 알아봅니다.

뭘 해도 멋져보여

후광효과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면 후광이 비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후광효과는 직장생활에서도 적용됩니다. 말끔하게 생긴 사람이 일도 깔끔하게 처리할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후광효과는 심리학자 손다이크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 개개인의 역량을 항목별로 평가하도록 한 데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지휘관들은 체격이 좋고 품행이 단정한 병사들을 지성과 리더십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외모에 현혹되는 현상이 어쩐지 씁쓸합니다만, 연예인들을 앞세운 각종 광고들 역시 후광효과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칼리굴라 효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심리는 모두에게 잠재돼 있습니다. 바로 칼리굴라 효과 때문인데요. 1979년 미국 보스턴 시가 잔혹한 장면이 많다는 이유로 영화 〈칼리굴라〉 상영을 금지하자, 오히려 영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데서 명칭을 따왔습니다. 당시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던 청개구리 시민들은 '도대체 얼마나 잔혹하기에!'라는 의문을 품고 인접 도시의 영화관으로 몰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네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은 국경을 초월하고 만국이 공통인 모양입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콩고드 오류

1962년, 대중들의 주목을 받은 여객기가 있습니다. 바로 '콩고드' 여객기인데요. 항공노선 운항시간을 크게 줄이는,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혁신의 결정체였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몸체가 너무 좁아 탑승가능 인원이 너무 적었고, 초음속으로 비행해야 했기 때문에 연료 소모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콩고드 여객기 개발에 이미 많은 금액을 투자한 영국과 프랑스는 개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적자가 천문학적 숫자에 달했지만 이들의 무리한 개발은 계속 이어졌고, 천신만고 끝에 운항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2000년에는 폭발사고가 나 결국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콩고드 오류라고 하면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를 위해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목적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말이죠.

미완성된 것이 더 좋아

제이갈닉 효과

TV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갔다면,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겠죠? 결과를 보지 못했으니, 해당 드라마에 대한 각인효과도 오래갈 겁니다. 각인효과가 오래간다는 것은 '흥미를 끌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듯 제이갈닉 효과란 완성된 것보다 미완성인 것에 더 흥미를 느끼는 심리현상을 뜻합니다. 소련의 인상심리학자 '제이갈닉'이 밝혀낸 이론인데요. 제이갈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작품으로는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가 대표적이겠죠?

관심 있는 이야기에 귀가 쫑긋!

칵테일파티 효과

아무리 시끄러운 현장 속에서도 본인이 흥미를 갖는 이야기는 귀신같이 들리는 경우가 있죠? 칵테일파티 효과 덕분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와 잡음이 섞이는 파티 현장에서도 본인이 흥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는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지각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와중에 어디선가 내 이름이 들리면 그쪽으로 귀가 쫑긋해지고 그들의 대화내용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누가 일을 그렇게 잘한다던데?"라는 이야기에도 귀가 쫑긋하는 것,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죠?

따르르릉~ 전화, 잘 받고 계십니까?

전화예절을 잘 몰라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거래가 불발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직장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때 꼭 지켜야 할 예절,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벨이 세 번 이상 울리면 안 돼요

전화를 걸었는데, 하염없이 벨소리만 들린다면 이것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에 걸려온 전화는 벨이 세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 것이 좋은데요. 부재중인 동료에게 걸려온 전화 역시 벨이 세 번 이상 울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당겨 받는 것이 좋겠죠?

만약 여러 번 울린 후 전화를 받게 됐다면,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예의를 갖춰주세요.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벨소리만 듣고 있었을 상대방이 호의를 갖게 되는 아주 사소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목소리는 밝게, 자신있게!

같은 "안녕하세요"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천차만별로 달라지죠?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전화통화는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걸려온 전화는 '생기 있게' 받아주세요.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아래 예시 처럼요! 이 정도는 모두 잘 지키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대변인실 늘봄 과장입니다.
회사 소속 이름 직함

⋯› 휴대전화는 늘 소지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사무실에 비치된 전화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로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로 업무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편이라면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는 경우라도 늘 지니고 다녀주세요. 책상에 올려둔 휴대전화 진동이 동료들에게 큰 소음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만약 회의 중 휴대전화로 업무전화가 걸려온 경우라면 양해를 구한 뒤 통화하고,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즉시 회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적인 통화라면 당연히 사무실 밖에서 해야겠죠?

⋯› 포스트잇과 펜, 챙기셨나요?

전화로 업무요청을 받았는데 요청받은 업무를 잊어버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잊으시죠?

통화 종료 후, 원래 하던 업무로 복귀하면서 벌어지는 상황들인데요. 사소한 업무요청이라면 뒤늦게라도 해결할 수 있지만, 중요한 업무요청을 놓친 것이라면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소속, 이름, 숫자, 시간, 기한 등은 필수로 적어둬야 실수가 없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면 전화를 끊기 전 기록 사항이 맞는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 수화기는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후 내려놔요

회사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내가 전화를 걸어야 할 때도 많죠? 전화를 걸 때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속과 성함을 먼저 밝혀주세요. 간혹 자신의 소개를 건너뛰고 "OO대리님 계세요?"라고 용건부터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굉장히 무례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만약 통화할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OO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회신 부탁드린다는 메모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화할 상대의 부재로 대신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메모를 부탁할 때는 자신의 성함과 소속, 연락처를 꼭 알려주셔야 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와서 '중요한 전화인가?' 싶어 받아보면 보험가입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시 아무런 말도 없이 끊어버리거나 마음 아픈 말을 던지진 않겠죠?

고객응대근로자 역시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일 뿐입니다. 마음 아픈 말로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해요, 우리.

글 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사장님과 제 생각은 늘 조금씩 다르네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사장과 근로자의 입장은 늘 조금씩 다릅니다. 고구마 같은 갑을관계에서 늘 가만히만 있을 순 없겠죠?

Q1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회사에 들어갈 때, 연봉을 13으로 나눈다는 말도 못 들었거든요. 결국 제 입장에선 연봉을 깎아서 입사한 건데, 그마저도 안 주니 복장이 터집니다. 그간 회사에서 퇴직통장에 다달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고만 들어서 으레 그런 줄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맹해보였던 건지… 속이 상합니다.

A_ 임금제도의 한 유형인 '연봉제'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체계를 말하며, 연봉의 결정이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간 약정이 있었다면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에서 연봉의 지급방법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1부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한 처벌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의 효력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지급기한 이후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때까지 기간 동안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연봉에서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매월 적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정제도인 퇴직연금에 가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의 퇴직일시금은 (사용자가 매월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실제 적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직전 3개월에 기초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수년간 재직하였고 매년 연봉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①사용자가 퇴직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②모든 재직기간에 대해 퇴사 당시 가장 높은 연봉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③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④미지급시에는 그 기간 동안 지연이자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터줏대감 모PD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후… 진짜…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네요. 매번 야한 농담을 던지거든요. 그냥 넘기기를 여러 번, 그런데 어느 날은 저보고 어깨가 뭉쳤다며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네요? 불쾌해서 한 마디 했더니, '요즘 여자들은 왜 저렇게 칼랑칼랑 하냐'며 볼멘소리를 합니다. 어디까지가 직장 내 성희롱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A_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은 ①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②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이어야 하며, ③가해자의 행위가 성적인 언동이어야 하며, ④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거나 가해자의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피해자의 근로조건 등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합당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벌칙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례에서 ①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와 관련해, ②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PD의 행위가 있었고, ③그러한 행동이 성적인 언동이었으며, ④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였다면, 동 PD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프리랜서 작가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 보호를 직접 받을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형태상 프리랜서 작가일 뿐이고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는 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인사부서에 직접 행하든 고충위원에게 하든 무방함), ②성희롱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③성희롱이 인정된 때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조사 요구에 대해 상급자의 무마 시도만 있을 뿐,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조사 불이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안에 따라 야근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야근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매일 야근'을 해요.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계약서에 야근수당과 관련한 정확한 명시가 없어서,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야근수당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야근이 있을 수 있다'가 '매일 야근을 해도 된다'는 아닌 것 같은데… 퇴사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걸까요?

A_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수당 지급 시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는 매번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해도 가능합니다.

사례에서 연장근로를 사안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개별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동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포괄동의에 의한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포괄동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1주 12시간 연장근로(주말 휴일근로시간 포함)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포괄동의에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주말에도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는 1일 최초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례에서 근로자는 ①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사용자에게 비출 수 있고, ②매일의 연장근로 요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완화를 요구할 수 있고, ③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계약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④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위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저는 4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합이 좋아서, 근무 자체는 무척 즐겁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사장님이 야근수당 대신 상품권을 주시거든요. 그것도 엄청 선심을 쓰는 느낌으로다…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상품권 대신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주십니다. 동전 소리도 딸랑딸랑 들리고요, 때로는 동전이 없다면서 백 원 단위는 제하고 주기도 하는데요. 이거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A_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통화불 원칙, 전액불 원칙, 직접불 원칙, 정기불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①통화불 원칙은 임금 지급시 상품권이나 주식 · 현물 등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②전액불 원칙은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상 상계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③직접불 원칙은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④정기불 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당초 약정한 1일 8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고,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당초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수당지급시 법정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사례에서 ①근로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통화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②임금 지급시 100원 단위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③근로자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해 시급 통상임금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④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법정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판단 시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해고시 서면통보,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생리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주휴일, 휴게, 퇴직(연)금, 해고 시 1개월 전 서면통보, 출산전후휴가, 재해보상 등은 적용됩니다.

우리 사이는 2m가 딱 적당해요!

심심할 땐, 집콕 챌린지 하세요!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장기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덕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방전될 즈음 비로소 성공한다는 달고나 커피부터 수플레
팬케이크까지, 집콕 챌린지에 도전해볼까요?

★★☆☆☆ **추억의 맛이 커피에 퐁당!**

달고나 커피

커피가루와 설탕, 물을 넣고 400번 넘게 저어야 비로소 먹을 수 있다는 달고나 커피가 전 세계인의 놀이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이 이미 16만 개를 넘길 정도인데요. 레시피는 매우 단순하지만, 달고나 크림을 만들기 위해선 화가 나기 직전까지 휘핑을 해야하기 때문에 '악마의 레시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재 료

인스턴트 커피 2스푼(설탕과 프림이 함유되지 않은 커피 원두), 설탕 2스푼, 따뜻한 물 2스푼, 우유 150~200ml

만들기

1. 그릇에 커피, 설탕, 따뜻한 물을 각각 2스푼씩 넣고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2. 꾸덕해질까지 저으세요. 믿기지 않을 만큼 오래 저어야 달고나처럼 크림 형태로 변합니다.
3. 컵에 얼음을 넣고 우유를 붓습니다.
4. 완성된 달고나 크림을 올리면 끝!

★★★★☆ **달고나 묻고 더블로 가!**

수플레 팬케이크

달고나 커피 레시피가 너무 쉬웠다 하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챌린지는 '수플레 팬케이크'입니다. 만드는 원리는 달고나 커피와 다르지 않지만, 400번이 아니라 만 번의 휘핑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바깥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요즘,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엔 제격입니다.

재 료

핫케이크 믹스 150g , 계란 2개 , 설탕 50g, 우유 80ml

만들기

1.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한 후, 노른자만 저어 거품을 만듭니다.
2. 중간에 우유 80ml를 넣고 계속 저으세요.
3. 설탕 25g을 조금씩 넣으며 연노랑색의 머랭이 될 때까지 젓습니다.
4. 완성된 머랭에 핫케이크 믹스 150g을 채에 걸러 넣은 후, 냉장고로 직행!
5. 이번엔 계란 흰자를 휘핑할 차례입니다. 아무 것도 넣지 말고 크림형태가 될 때까지 계속 저어주세요.
6. 냉장고에 넣어둔 반죽과 크림형태로 변한 계란 흰자를 섞어 줍니다.
7.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아주 약한 불에서 구워주세요.
8. 잘 구워진 팬케이크 위에 슈가파우더와 버터를 올리면 끝!

★☆☆☆☆ **작은 농장 주인이 되어 봅시다**

대파

달고나 커피와 수플레 팬케이크가 강한 인내심을 요하는 악마의 챌린지라면, 대파 키우기는 천사의 챌린지입니다. 심은 지 2시간만 지나도 대파 크는 속도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키우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대파 키우기에 도전해 볼까요?

키우기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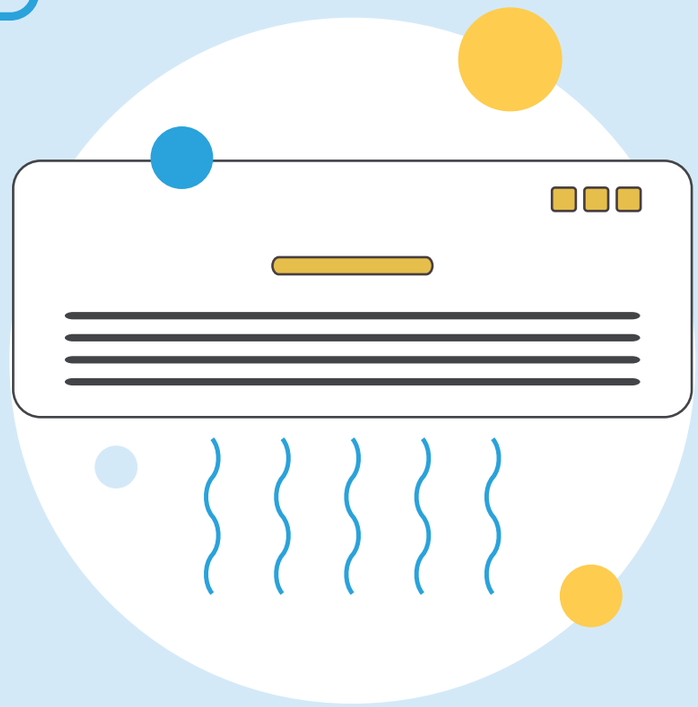
1. 대파를 사세요. (냉장고에 있던 대파를 활용해도 됩니다.)
2. 뿌리에서 약 10cm 되는 지점을 칼로 자릅니다.
3. 화분에 흙을 채우고 자른 대파를 심습니다.
4. 물을 흠뻑 주고, 빛이 잘 드는 곳에 옮겨주세요.
5. 2~3시간 후에 확인해보세요. 벌써 자라고 있을 겁니다.

2~3H

에어컨

청소하셨습니까?

정오의 태양 높이가 가장 높고,
일사량이 가장 많은 하지(夏至)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작동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먼지가
소복이 쌓였을 에어컨, 그대로
사용하실 생각은 아니겠죠?



에어컨 외부 청소, 어렵지 않아요!

에어컨 청소라고 하면 머리부터 아파집니다. 뜯고 조립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어컨 외부 청소는 생각보다 아주 쉽답니다. 가구를 닦는 것처럼 부드러운 헝겊으로 청소해주면 되거든요. 좁은 틈새에 쌓인 먼지는 솔로 털어주고, 잘 지워지지 않는 오염 물질은 주방용 중성세제를 헝겊에 묻혀 싹싹 닦아보세요. 새 것처럼 광택이 반짝반짝 날 거예요.
에어컨 외부 청소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부분입니다. 젖은 헝겊, 또는 만능 클리너 류의 제품으로 닦을 때 물기가 에어컨 본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에어컨 필터 청소

에어컨 필터를 본체에서 분리한 후 먼지를 탈탈 털어냅니다. 진공청소기로 남은 먼지까지 빨아들인 후, 물로 필터를 깨끗이 세척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터를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변형이 생길 수 있으니 힘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물 세척을 했는데도 때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중성세제를 이용해보세요. 다이내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 세척을 마친 필터는 수건으로 닦지 말고 양지바른 곳에 잘 말립니다. 단, 햇빛이 너무 강하면 필터에 변형이 올 수 있으니, 약한 햇빛에서 말리는 게 좋아요.

에어컨 냉각핀 청소

에어컨 필터 안쪽에 위치한 냉각핀을 청소할 차례입니다. 에어컨 냄새의 온상이 되는 만큼, 에어컨 청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냉각핀 아래쪽에 있는 물받이가 물을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냉각핀 청소는 물을 뿌려가면서 해도 됩니다.
다만 냉각핀은 기름때가 끼기 쉬워 그냥은 잘 닦이지 않아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먼지제거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참고로, 청소를 마친 후 곰팡이 제거제나 새집 증후군 제거제 등을 뿌려주면 세균 번식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실외기 청소

에어컨 청소를 모두 마쳤는데 냉방이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실외기를 체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실외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외기 청소는 먼지를 털어내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실외기 표면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tip

청소의 달인에게 물었어요

Q 작년에 잘 닦아서 보관했는데, 또 청소해야 할까요?

A 작년에 닦았어도 또 청소해야 합니다.
"작년에 잘 닦은 후 보관했는데, 또 청소해야 할까요?"라는 질문들 참 많으신데요.
작년에 잘 닦아둔 에어컨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습기까지 피할 수는 없었겠죠? 따라서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 다시 한 번 말끔히 청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에어컨 청소는 크게 외관, 필터, 냉각핀, 그리고 실외기 청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답니다. 전원 코드를 분리하셨다면, 에어컨 청소의 준비운동을 모두 마치신 겁니다!

Q 에어컨 청소 후, 바로 작동시켜도 될까요?

A 송풍 먼저 하세요!
에어컨 내부에 세균이 번식하는 이유는 '습기' 때문입니다. 청소 과정에서 혹시 남아있을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세균번식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청소를 마친 에어컨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송풍해주세요. 에어컨 내부가 바삭하게 마를 수 있도록요!

Q 에어컨 청소는 일 년에 한 번이면 되겠죠?

A 필터는 2주일에 한 번, 냉각핀은 한 달에 한 번!
생활공간 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는 에어컨 필터에도 찰싹 달라붙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간격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길어도 한 달을 넘기진 말아주세요. 냉각핀은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으면, 각종 기름때가 켜켜이 쌓여 오히려 청소가 더 어려워져요!

이불 밖은 아직 위험해요.
집에서 즐기는 착한 놀이

집에서 떠나는
꽃놀이

이젠 마스크 없인 버스나 지하철 탑승이 불가능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 앞에선 아직 '집에서 하는 문화생활'이 제격입니다

소설 같은
소설

6월의 들판, 클로드 모네 〈개양귀비꽃〉

미술작품은 조금 비겁합니다.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알아야 비로소 속을 내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면이 있으니 말이죠. 비밀을 풀어헤치는 매력은 있겠으나, '진실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노력과 시간이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감상자의 입장에선 꽤나 불친절하다 싶은데요. 반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있는 그대로 감상이 가능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클로드 모네의 〈개양귀비꽃〉이 바로 그 중 하나죠.

5~6월 사이 활짝 피는 개양귀비꽃은 모네의 마음을 붉게 물들였던 모양입니다. 화창한 초여름 어느 날, 모네의 눈에 들어온 파리의 평화로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담겨있는데요. 1871년 파리 근교의 아르장퇴유에 정착했던 모네가 당시 그의 아내인 카미유와 어린 아들을 주로 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품 속 모자(母子) 커플 역시 아마 그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들판 위에 흩뿌려진 개양귀비꽃. 꽃놀이도 제대로 못한 지난봄을 위로해주네요.

다시 걸을 때 필요한 책, 김애란 〈바깥은 여름〉

"누군가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있거나 놓은 내 친구들처럼 어떤 것은 변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인 채 여름을 난다."

여름의 문턱에 선 김애란 작가의 서신입니다. 〈바깥은 여름〉은 시간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서버린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무언가를 잃고 나면 어찌할 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단편이 작품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여름을 나고 계신가요.

여성의 성장을 그린, 토베 얀손 〈여름의 책〉

'성장'을 테마로 한 작품들은 대부분 실망시키지 않고 감동을 주기 마련입니다. 토베 얀손의 〈여름의 책〉 역시 그렇죠. 여성 억압의 역사 속에서 수난당해야만 했던 고통의 서사, 여성이 여성으로서 털어놓을 수 있는 자기만의 소리 등을 담았는데요. 매서운 분투 속에서 생존한 여성 문학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북유럽 지역에선 가히 '국민 소설'이라고 불릴 만큼 세대를 불문하고 애독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타임머신 타볼까요? 〈해변의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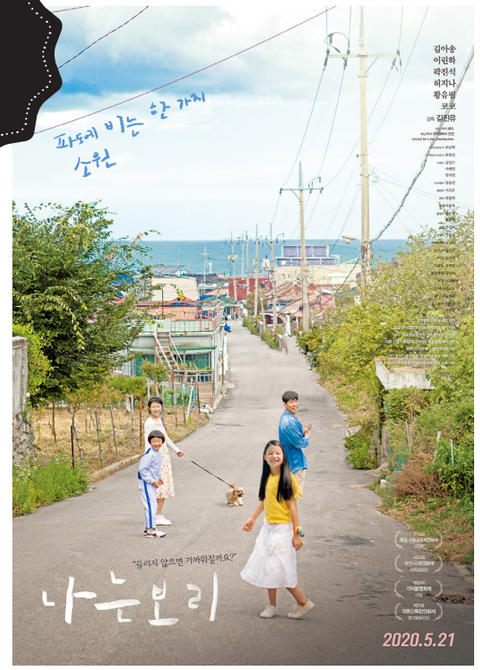
코로나19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 이번 여름은 해수욕도 고민스런 지점이 될 텐데요. 〈해변의 여인〉과 함께라면 상상만으로도 해변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요. 7080세대라면 다 아는 혼성그룹 쿨도 벌써 20년 전 가수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노래는 여전히 여름마다 생명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DJ.DOC의 〈여름이야기〉, 듀스의 〈여름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여름 노래죠?!

팝송으로 만끽하는 해외여행 〈This is How We Do〉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편이 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여름휴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다면 '기분'이라도 내는 건 어떨까요? 청량감 넘치는 여름 팝송과 함께 말입니다. 〈This is How We Do〉는 친구들과 걱정 없이 삶을 즐기는 '바캉스' 같은 모습들을 노래하는데요. 느긋하게 태닝을 받고, 팬케이크를 굽고, 네일도 받고, 노래방에서 머라이어 캐리 따라하다 삑사리도 내보자는 재미있는 가사가 웃음을 자아냅니다.

비 내리는 여름날, 〈레이니 데이 인 뉴욕〉

요즘 영화관은 '옛날에 했던 영화 다시 상영하기'가 대세죠? 하고 많은 영화 중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이 상영관에 떡하니 다시 오른 이유는 단연 '설렘'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막 떨어지기 시작한 빗방울을 맞으며 누군가 센트럴 파크 델라코트 시계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서로가 운명이라고 느꼈던 왕년의 그 시절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영화랍니다. 비 내리는 뉴욕은 아니더라도, 비 내리는 청계천에서 아내, 남편과 함께 걷는 건 어떨까요?



같은 영화 다시 보기 싫다면, 〈나는 보리〉

바닷마을에 사는 열한 살 소녀 '보리'는 가족 중 유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짜장면과 피자를 시킬 때, 은행에서 전화가 올 때 등 타인과의 소통이 필요할 때 늘 가족의 의사를 대변하죠. 〈나는 보리〉는 이미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와 제24회 슈링겔국제영화제에서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수많은 상업영화에 물렸다면, 차라리 장애를 갖게 해달라는 특별한 소원을 비는 보리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2020년 6월호

애독자 모의고사

100

성명		전화번호	

모든 해답은 〈월간 내일〉 6월호에 있습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감염 경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음 중 유연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❶ 재택근무제
❷ 시차출퇴근제
❸ 월차
❹ 원격근무제

힌트
20-23페이지를 살펴보세요.

2.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지키고 계신가요? 거리두기는 회사에서도 잘 지켜져야 할 텐데요. 다음 중 회사에서 일할 때 거리두기 방안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❶ 사무실, 작업장은 매일 2회 이상 환기합니다.
❷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❸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 다녀왔으나 호흡기 증상이 없다면 출근해도 됩니다.
❹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합니다.

힌트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의고사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엽서로 제출 시 엽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 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 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 위 방법대로 다시 시작!

5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홍경석 님	안홍실 님	배영아 님	이해만 님
박노선 님	전수혜 님	박경림 님	
송최동 님	박혜정 님	김태인 님	

* 퀴즈 당첨자 분들껜 6월 중으로 커피 쿠폰을 선물해드립니다.

〈월간 내일〉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www.labor21.com

1.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엽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2.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com'을 입력하세요.

3.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시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세요.

고용노동부